

# 228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7. 04. 17



—

##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김태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태희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요약	3
I.	지역사회 속의 대학, 역할과 실태	4
II.	해외 선진사례	6
III.	서울시 협력실태와 유형	12
IV.	정책제언	16

김태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307  
innerpower69@si.re.kr

이태희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t.h.lee@outlook.com

서울시 내 대부분 대학은 1980년대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강북지역의 쇠퇴·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들은 대학평가를 의식한 기숙사 등 학교시설물 건립과 상업시설의 학내 설치로 주변지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는 대학-지역사회 협력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서울시 사례를 심층 인터뷰하여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활성화에 대학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부차원의 대학참여 유도정책과 재정지원이 지역 활성화에 효과적

일본은 「지역공헌」을 대학의 역할로 명문화하고 내각관방의 도시재생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대학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재생을 목표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대학-지역사회의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례는 중앙정부가 전담조직을 갖추고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서울시 내 대학-지역사회 협력은 산발적이지만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

서울시는 최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2014」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총 13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관악구는 대학-공공-지역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지역사회 협력은 공간·시설 협력형, 인적·지적 자원 협력형, 경제적 협력형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공동체 형성,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

### 대학의 지역 맞춤형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인 틀 속에서 수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지속적 협력과 참여 유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간·시설 협력, 인적·지적자원 협력, 경제적 협력 등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둘째, 주변지역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제도적 틀 안에서 수용한다. 대학의 지역공헌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대학평가에서 지역공헌을 인정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 연계 등 유인책을 마련한다. 셋째,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와 역할 분담체계를 우선 마련한다. 대학-서울시(또는 자치구)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대학 내에서도 지역협력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 I. 지역사회 속의 대학, 역할과 실태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관심이 증가

대학캠퍼스가 시가지 내부로 편입되면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

- 주변부에 입지했던 대학이 시가지의 일부로 편입
  - 서울시 내 대다수 대학은 대규모 토지 확보가 쉬운 시가지 주변부, 구릉지에 입지
  -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대학캠퍼스가 시가지의 일부로 편입
- 도시경관, 토지이용과 기능상 갈등이 커지는 추세
  - 대학캠퍼스의 확장, 대학 내 시설물의 신·증축으로 주변지역과 경관문제 발생
  - 기숙사 증축, 상업시설의 도입으로 골목상권과 충돌
- 서울시 내 대학의 93%가 5대 생활권역 중 비동남권에 입지
  - 대학이 입지한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확충이 곤란하고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지역 활성화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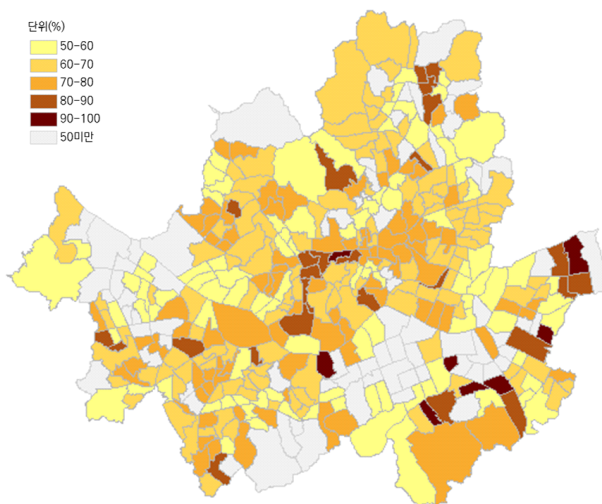


그림 1.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자료: 서울시, 과세부와 자료(건물분), 2012



그림 2. 권역별 대학 분포

- 
- 대학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
    - 대학은 오픈스페이스, 각종 시설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
    - 교육·연구 외에도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공익적 역할에 관심 증가

## 종합적인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지역 재생·활성화를 위한 협력 논의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종합적 관점이 부족

- 대학 시설물의 공유 등 물리적 측면의 협력을 주로 논의
  - 대학가 주변 상업지대 가로 정비, 담장 혹은 시설물 개방 등 물리적 측면이 다수
- 교육·복지 측면의 협력은 개별적으로 추진 중
  - 평생학습, 지역산업을 위한 산학 협력형 교육, 학생 봉사활동의 확대 등 교육·복지 측면의 협력은 개별적으로 추진 중
-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종합적인 관점이 부족한 실정

당위적 협력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사실상 부재

- 지금까지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론적 주장이 지배적
  - 대학의 일방적 지원을 강조하는 협력은 지속성 확보가 곤란
- 대학기관의 특성 고려가 미흡
  - 2013년 기준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 비중이 79%이므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
- 규제 이외의 참여 유도방안은 사실상 부재
  -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관리는 세부시설조성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대학 시설물의 신축·관리 위주로만 진행

## II. 해외 선진사례

### 일본은 대학의 ‘지역공헌’ 의무를 관련법에 명문화

#### 관련법 개정과 정부지원으로 대학-지자체 협정 등 협력사례 증가

- 지역의 고령화·쇠퇴 문제 해결에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
  -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자생력이 강조되었고, 풍부한 인적·지적 자원을 보유한 대학의 중요성을 인식
  - 대학도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수요자 확보 등 지역공헌의 필요성에 공감
- 중앙정부는 대학-지역사회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화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2005년 내각관방 도시재생본부는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동에 의한 도시재생 추진」을 정책과제로 채택
  -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등을 개정해 기존의 ‘교육’, ‘연구’와 함께 대학의 ‘지역공헌’ 의무를 교육관련법에 명문화
  - 2013년 문부과학성은 「Center of Community(COC)」 사업을 시행하고 대학-지역 협력 촉진을 위해 대학당 연간 최대 5천 8백만 엔(5억 9,400만 원)을 5년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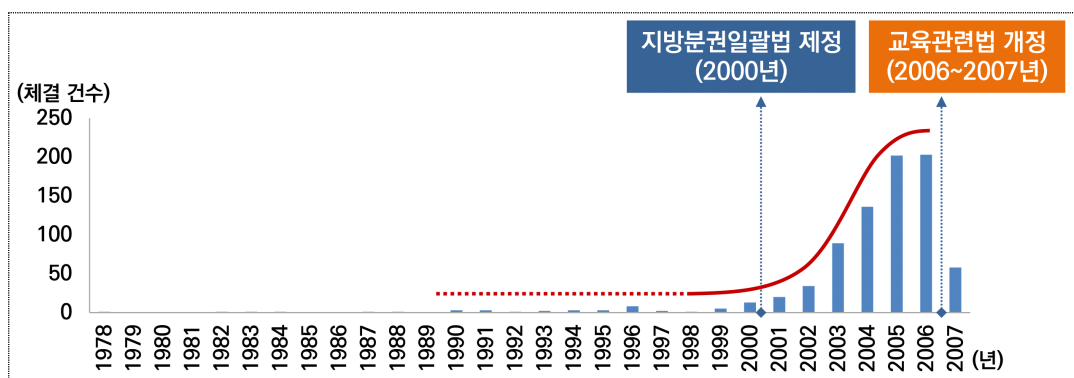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대학-지자체 협정 체결 건수 (2007년은 1~5월만 합산)

자료: 内閣官房 都市再生本部(2007) 재정리

## 요코하마시는 관내 30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조직도 설치 운영 중

-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구성·운영 중
  - 요코하마시는 관내 30개 대학의 대표(학장 또는 이사장)와 시장을 포함한 시의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2005년 3월)
  - 대표자 간 정기 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실무 담당자 간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회의 진행 (2015년 기준 총 4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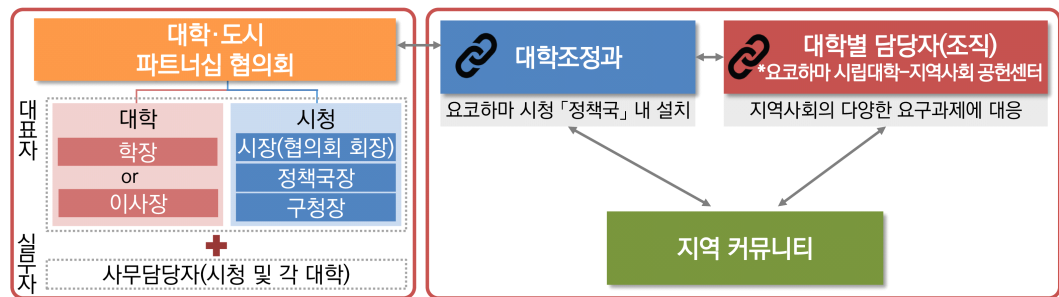


그림 4. 요코하마시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 시청과 대학에 각각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
  - 시청 내 대학-지역사회 협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관련 주체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조정과’를 설치 (2005년 4월)

## 요코하마 시립대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

- ‘지역공헌센터’(2009년), ‘자원봉사 지원실’(2015년)을 설치하여 대학-지역사회 협력과 소통을 전담
- 대학의 공간·시설 자원을 지역사회 협력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으로 제공

- 도서관, 다목적 홀, 수영장, 생물학 연구소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COC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재생 및 공동체 정책을 위한 거점시설 설치
- 지식·인적 자원을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헌활동에 활용
  -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어학강좌, 교양강좌, 의료강좌 등)
  - 지역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대학 수업 참관 등)
  - 대학생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캠퍼스타운 가나자와' 프로그램)
  - COC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과 관련한 정규 강좌(지역 마을 만들기 실습 등)를 개설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지역도매업 활성화 연구 등)

**표 1. 요코하마 시립대-지역사회 주요 협력사례**

협력유형	협력 프로그램
공간·시설 자원을 활용한 협력	캠퍼스 시설 개방 (도서관, 다목적 홀, 수영장 개방)
	2곳의 거점 공간 운영 (나미끼 거점, 칸나이 거점)
지식·인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	평생교육 (어학강좌, 교양강좌, 의료강좌)
	초·중·고생 대상 교육
	캠퍼스타운 가나자와 (젊은 인재 확보에 의한 지역기업 활성화 사업 등)
	지역에 관한 수업 및 연구 (지역 마을 만들기 실습, 지역도매업 활성화 등)



## 미국은 연방정부가 협력체계 구축에 재정지원

### 대학-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연방정부가 「커뮤니티 지원활동 센터」(COPC: 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 Center) 프로그램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학과 지역사회가 쇠퇴한 지역의 재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
  - 선정된 대학에 매년 15만~58만 달러(1억 7천만~6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89개 대학에 총 8천만 달러(91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
-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마련
  - COPC 프로그램은 대학 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인 ‘커뮤니티 지원활동 센터’의 설립과 협력활동을 촉구하는 마중물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
  -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보조금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다른 기관과의 펀드 매칭을 의무화 (매칭비율 25~50% 이상)
  -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보조금 종료 후 협력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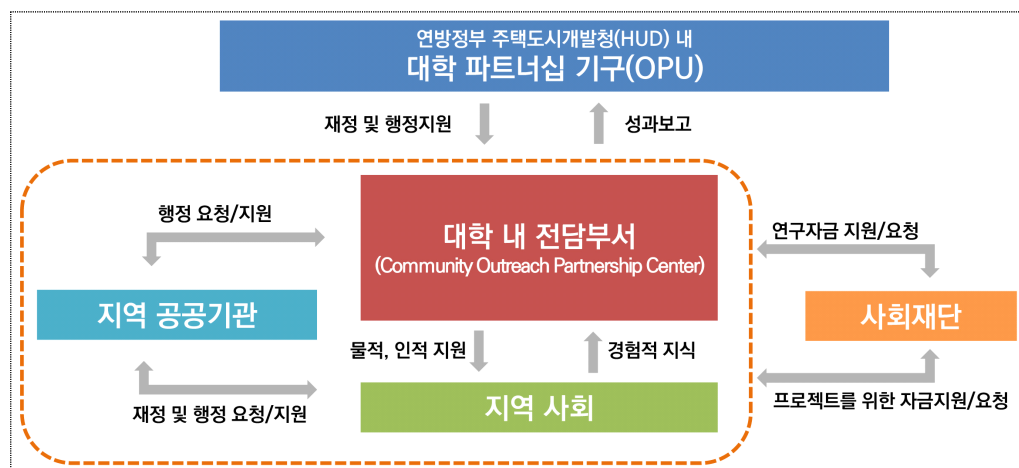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COPC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구조

##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대학주도의 지역재생을 추진

- 대학-지역사회 간 불신과 반감이 심했던 지역이지만, 치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 1970년대 대학캠퍼스의 확장 과정에서 주변 저소득층 흑인 커뮤니티의 등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던 지역이며, 대학과 지역사회 간에 강한 불신과 반감이 존재
  - 필라델피아시 제조업의 쇠퇴와 교외화로 대학 주변지역이 급격하게 슬럼화
  - 1990년대 중반 학교 주변에서 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심해지고, 대학은 치안문제 등 주변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 전담조직의 확대개편으로 지역사회 협력활동의 실행력 확보
  - 지역사회 협력활동을 총괄하는 부총장 직위(행정·대외 부총장)를 신설하고, 기존 전담조직인 커뮤니티 파트너십 센터(Netter Center)를 부총장 직속 기관으로 확대 개편
  - 1996년 COPC 보조금 수령(약 40만 달러)과 함께 지역사회 협력활동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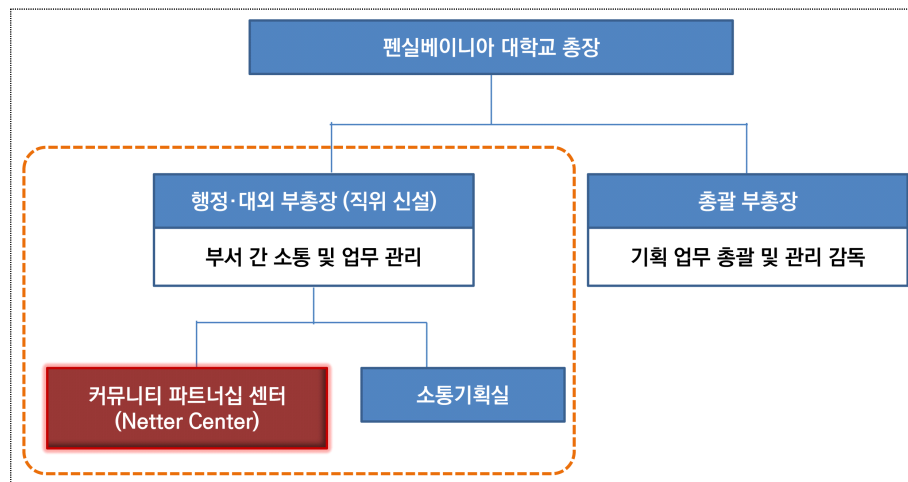


그림 6. 부총장 산하 커뮤니티 파트너십 센터 주도로 협력활동 진행

-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대학주도의 지역재생을 추진
  - 1996년 총장 지시로 「웨스트 필라델피아 이니셔티브(WPI)」라는 대학주도의 지역 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재정을 활용하여 시행

-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대학 주변 공공 인프라를 정비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율 감소에 기여
- 다양한 주택 선택권 제공: 대학이 지역의 주택을 매입·수리하고 교직원에게 임대하여 대학 교직원의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 주거환경 개선
- 상가 활성화: 상업용 부동산의 적절한 투자를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
- 경제발전 지원: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이 필요한 물품을 지역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개선에 이바지
- 지역 교육 여건 개선: 대학의 인적·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변 교육환경 개선
  - 예시: 대학 부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설립·운영, 정부지원을 받아 지역 학교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표 2. '웨스트 필라델피아 이니셔티브'(WPI) 5대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

5대 목표	주요 추진전략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대학 주변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개선 지원
	교내·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공공 공간과 거리 경관 개선
다양한 주택 선택권 제공	쇠퇴한 건물을 매입해 수리 후 교직원 임대
	교직원들이 쇠퇴지역의 집을 구입하거나 수리 후 거주할 수 있도록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상가 활성화	캠퍼스 주변의 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조인트 벤처를 통한 부동산 투자
	상가 매입 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 나은 용도로 전환
경제발전 지원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기회 제공
	지역 소재 사업체들과 구매계약을 맺어 금전적 지원
지역 교육 여건 개선	대학이 지원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가까운 지역사회에 설립
	대학의 인적·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커리큘럼 설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III. 서울시 협력실태와 유형

---

####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sup>1)</sup>

최근 서울시는 지역활성화에 대학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을 시도

- 지역활성화에 대학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종합적 노력을 시작
  -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이 함께 이뤄지는 대학가 조성을 목표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
  - 종합적 지역재생을 추진하는 지역창조형 지원(개소당 50억~100억 원), 단위사업 중심인 프로그램형 지원(6억~30억 원) 등으로 2025년까지 총 1,520억 원을 지원할 예정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 「대학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2014」를 수립하여 대학의 공간·시설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관리
  - ‘지역공동체계획’ 항목을 신설하여 대학 공간·시설 자원의 지역개방을 유도

서울시 산하 중간지원조직은 대학 자원의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련한 대학의 수업을 지원 (2015년에 총 13개 대학이 참여)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대학과 연계하여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봉사를 지원

---

1) 대학-지역사회 협력관련 주체별 특성, 이해관계, 협력 메커니즘 분석, 상생적 협력 가능성 탐색

※ 관련주체: 시청, 자치구청, 대학, 지역사회(주민·상인), 중간지원조직, NGO, 기업 CSR팀 등

※ 선정대학: 연세대, 이화여대(이상 서북권), 서울시립대, 국민대(이상 동북권), 서울대, 중앙대(이상 서남권)

---

## 대학-자치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진행

- 도시재생 분야에서 상호 연계·협력
  - 서대문구, 동작구, 성북구는 자치구 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 중 (관련 학과 교수들이 총괄계획자로 참여 중)
  -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진행 등
- 주민·상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
  -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교양 교육
  - 지역상인들을 위한 상권활성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서비스(멘토링)를 제공하는 등 학생 교육봉사 활동으로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
- 대학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물 공유 등 시설 자원을 개방
  - 대학캠퍼스와 시설(주차장, 도서관, 체육관 등)을 개방해 도시기반시설 공유

## 민간기업은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운영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sup>2)</sup>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기업은 사회적 책임 수행과 기업 이미지 제고, 학생들은 봉사 경험 축적, 지역사회는 활력증진 등 참여주체 모두의 상생을 추구

---

2)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학-공공-지역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활발한 소통
  - 관악구청과 서울대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연 1회 정기적 만남 외에도 필요할 때 마다 상시적인 협의로 원활한 협력을 진행
- 관악구는 구청 내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유도
  - ‘대학협력팀’은 대학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창구’ 역할과 대학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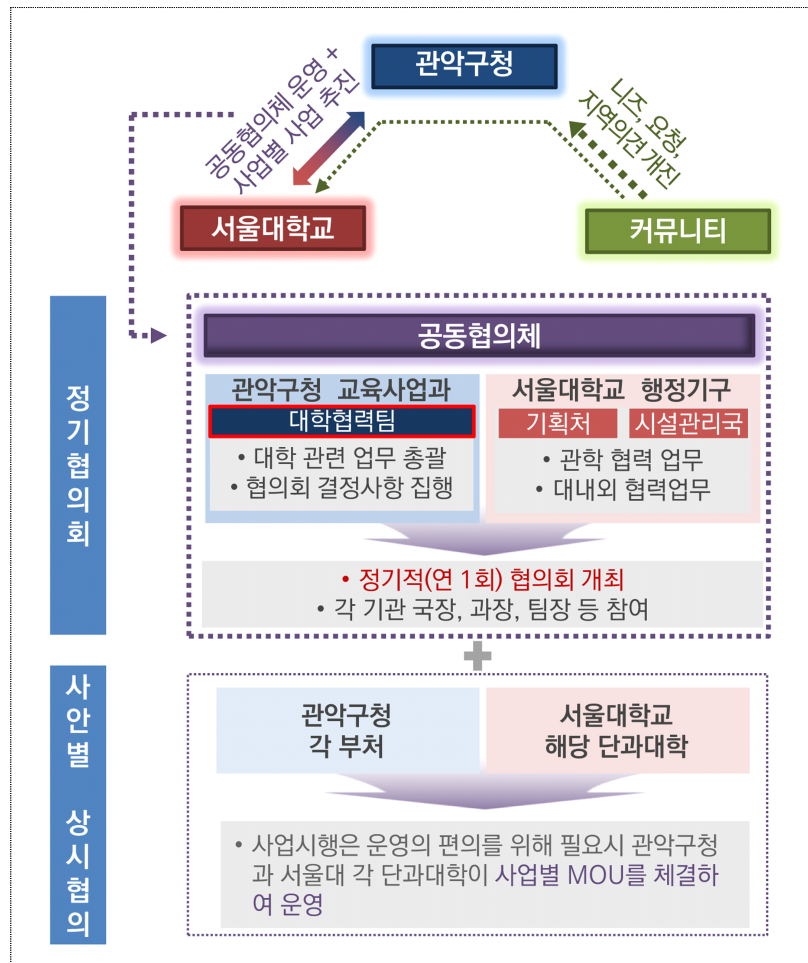


그림 7. 관악구청과 서울대 간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

## 대학자원과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5가지 유형으로 분류<sup>3)</sup>

### 시설 협력(유형 A): 낙후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 공동체·교육활동 등을 위한 시설 공급 효과

- 대학캠퍼스·시설을 낙후 지역에 개방해 기반시설 확충효과를 제공
- 다른 유형의 협력활동(예: 평생교육, 청년 창업활동)을 위한 공간·시설을 지원

### 인적·지적 자원 협력(유형 B)

- 유형 B1: 지역주민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상권 활성화·도시재생 교육, 시민교양강좌 등을 이용한 주민역량 강화
  -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교육환경 개선
  - 교육과정에서 지역주민 간 만남의 기회 제공으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 유형 B2: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학생-지역 간 이해도·유대감 상승
  -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지역 교육문제 등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 지역문제 해결에 관련 수업(예: 도시·건축설계)에서 도출된 학생 아이디어를 활용
- 유형 B3: 교육격차 해소, 지역문제 해결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
  - 대학생 멘토링, 지역 공동체를 위한 대학생 봉사활동

### 경제적 협력(유형 C): 대학 구성원의 구매력을 활용한 기여, 청년창업을 지원

- 상권 활성화, 독거노인 문제 완화  
(예: 지역 상권과 연계한 대학 축제, 대학생-독거노인 간 홈 셰어링)
-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

---

3) 1차로 공간·시설 자원(유형 A), 지식·인적 자원(유형 B), 경제적 자원(유형 C) 등 3가지로 유형화함. 유형 B는 다시 지역사회에 교육 서비스 제공(B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수업(B2), 대학생·교직원 봉사활동(B3)으로 세분화하여 총 5가지로 유형화

## IV. 정책제언

### 대학의 지역 맞춤형 협력확대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

- 대학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협력을 추진
  -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간·시설 협력
  - 공동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적·인적 자원 협력
  - 학교·학생·지역이 상생하는 경제적 협력
- 주변지역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제도적 틀 안에서 수용
  -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협력 파트너로 인식
  - 대학의 지역공헌 의무를 명문화하고 대학평가에 지역공헌을 인정
  -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대학 교과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와 역할 분담체계를 우선 마련
  - 대학-서울시(또는 자치구)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전담조직 설치
  - 대학은 대학 내 지역협력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으로 소통창구 단일화

####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대학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협력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공간·시설 자원 활용으로 가용 기반시설을 확충</li> <li>- 대학의 인적·지적 자원 활용으로 공동의 커뮤니티를 형성</li> <li>- 대학·구성원의 경제력 활용으로 학교·학생·지역이 상생</li> </ul>
주변지역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협력 파트너로 인식</li> <li>-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공헌'으로 확대</li> <li>- 대학의 지역공헌 활동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li> <li>- 대학-지역사회 협력 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li> </ul>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와 역할 분담체계를 우선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밀한 협의·의사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li> <li>- 원활한 소통과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li> <li>- 대학 내 지역협력 인프라 구축</li> </ul>



##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협력을 추진

### 대학의 특성과 주변지역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 적용

- 대학의 공간·시설 자원 활용으로 가용 기반시설을 확충
  - 대학의 오픈스페이스·주차장 등 공간, 도서관, 강의실, 전시·공연장 등을 공유
  - 대학의 공간·시설 자원을 지역과 공유하되,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대학의 인적·지적 자원 활용으로 공동의 커뮤니티를 형성
  - 지역주민 교양강좌, 지역 상공인 전문교육, 초·중·고생 과외교육 등을 제공
  - 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관련 연구·수업을 개발하고 적용을 확대
  - 지역 봉사 등 인적 교류 확대로 커뮤니티 의식을 강화
- 대학·구성원의 경제력 활용으로 학교·학생·지역이 상생
  - 대학 재정으로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직·간접 지원
  - 주변지역 상권 연계, 축제 연계, 빈방 연계 등 학생들의 구매력을 활용
  - 수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 간 풍선효과는 지양

표 3. 대학의 자원과 기대효과의 유형

협력 유형		지역 활성화 효과
대학의 공간·시설 자원 활용(A)		기반시설 확충, 공동체 형성·강화 지원
대학의 인적·지적 자원 활용(B)	(B1) 지역사회 대상 교육 서비스	지역주민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공동체 형성에 기여
	(B2) 지역사회 대상 연구, 수업	학생-지역 간 이해도와 유대감 증진
	(B3) 대학생·교직 원 봉사	교육격차 해소, 지역문제 해결
대학·구성원의 경제력 활용(C)		청년창업 지원, 대학 구성원의 구매력과 상권을 연계

---

## 주변지역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수용

### 대학의 지역공헌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

-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협력 파트너로 인식
  - 지역 행정부는 대학이 시설물 통제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관리와 더불어 대학의 지역공헌 참여를 위한 공공 지원 방안 마련을 병행
  - 대학은 주변지역 가치의 변화가 대학 브랜드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상호신뢰를 구축
-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교육’, ‘연구’에 더하여 ‘지역공헌’으로 확대
  - 대학-지역사회 협력증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징적·실질적 의미 부여
  - 대학평가에 지역공헌 정도를 인정하여 대학의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
- 대학의 지역공헌 활동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
  - 서울시 내 대학은 대부분이 사립이므로, 대학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지역공헌 활동은 지속성에 한계 존재
  - 대학의 지역공헌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공공부문이 단독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효과적
- 서울시 차원에서 대학-지역사회 협력 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
  - 평생교육, 공동체 형성, 역량 강화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에 ‘대학 협력형 재생’을 추가하여 법정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고 대학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여 ‘지역공동체계획’ 수립 지침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제고

---

##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와 역할 분담체계를 우선 마련

### 대학을 지역 활성화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

- 긴밀한 협의·의사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시(구)청, 시(구)의회, 대학, 지역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대학 파트너십 협의회」(가칭) 설립으로 협력·확대 방안 지속 논의
- 원활한 소통과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시(구)청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
  - 대학에도 지역협력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해 지역의 협력수요와 학내 공급 주체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
- 대학 내 지역협력 인프라 구축
  - 대학 내의 단과, 교수, 학생 등의 체계적인 공헌활동을 유도
  - 건축, 도시, 복지, 교육 등 지역관련성이 높은 학과는 지역연계 수업(서비스러닝)의 학점을 인정